

광주시·일부 자치구, 위원회 운영 '부적정'

행안부, 올해 '시정조치' 공문 발송해...미개최 등 이유 매년 정비 불구 법령 제·개정 필요한 경우 많아 효과 ↓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운영하는 위원회 일부가 실적 부진과 장기 미개최로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정비·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광주시 및 관할 시·군 소속 위원회 운영 부적정' 제목의 공문을 광

주시, 서·남·북구에 전달했다. 공문의 취지는 최근 3년간 광주시 2개, 서구 2개, 남구 2개, 북구 1개 등 실적이 저조한 '미개최 위원회'가 있으니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폐지 등 시정 조치를 하라는 것이었다.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철저한 당부도

함께였다. 위원회는 행정기능·수요에 대응해 관련 전문가를 행정예 참여시켜 행정과 정책의 통합·조정을 위해 마련됐으며, 2024년 10월 기준 5개 자치구 위원회 개수는 동구 127개, 서구 144개, 남구 115개, 북구 112개, 광산구 123개이다.

구별로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위원회 개회 건은 남구 1천72건, 서구 1천462건, 동구 1천36건, 북구 1천428건으로 나타났으며, 광산구의 경우 올해 개회 건을 조사하지 않아 지난해까지 1

천8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같은 기간 전체 위원회 중 1회 이하로 열린 위원회는 동구 25개(19.7%), 서구 22개(15.3%), 남구 12개(10.43%), 북구 13개(11.6%), 광산구 20개(16.3%)로 조사됐다.

각 자치구는 매년 위원회 정비를 위해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동구는 ▲통폐합 2건 ▲협의체 전환 3건 ▲비상설화 5건 ▲폐지 3건 등 총 13개 위원회를, 서구는 ▲통폐합 4건 ▲비상설화 7건 ▲폐

지 6건 등 17개의 위원회를, 남구는 ▲비상설화 6건 ▲폐지 7건 등 13개의 위원회를, 북구는 ▲존속기한 명시 1건 ▲통폐합 5건 ▲비상설화 5건 ▲폐지 6건 등 17개의 위원회를, 광산구는 협의체 전환 2건 ▲비상설화 4건 ▲폐지 5건 등 총 11개의 위원회를 각각 정비했다.

다만 정비 가능한 위원회는 조례를 기반으로 구성된 것들로, 법령에 의해 조성된 위원회는 강행 규정이 있어 재·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비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한 자치구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위원회가 많아 위원회를 정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최대한 동일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그 외 위원회는 비상설화로 전환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위원회 정비 관련 제·개정 법령에 대해 최대한 강행 조항을 줄이고 임의 조항으로 전환하도록 의견을 제시해 정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석화 기자

'로맨스 스캠' 피해 올해 광주서 31건

14억 피해...경찰, 12건 종결·19건 수사 중

온라인 상에서 친분을 맺고 호감을 산 뒤 금전을 요구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피해가 광주지역에서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 신고 31건이 접수됐다. 총 피해금은 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은 이성적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 것처럼 속여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금전 등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의 일종이다.

수법의 특성상 피해자들은 실제로 일면식이 있는 지인이 아닌 SNS나 데이트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상에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는다.

기존에는 형성된 호감을 이용해 생활비나 직접 만나며 항공료 등을 요구하는 정도였으나, 최근 들어 쇼핑물이나 가상자산에 투자하라는 등 규모

가 커지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피해자 중 일부는 자신이 해외 파병 군인이나 사업가라며 돈을 요구한 뒤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 중 12건을 종결했고 19건에 대해서 계속 수사 중이다. 특히 경찰은 피해 신고 중 일부는 외국에 거점을 둔 조직의 소행이라고 보며 주범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로맨스 스캠 범죄 특성상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금이 여러 방법으로 세탁이 돼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외로움을 호소하거나 친구가 필요하다고 대화할 걸어오는 낯선 계정은 일단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투자를 권유하거나 기타 돈을 요청하는 경우 사기 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영 기자



AD-UL 01MAWQ 버스 정류장에 미술작품 전시 25일 광주 북구 용봉동 버스 승강장에 지역 작가의 '편집된 생태계-일록말'이란 작품이 전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북구는 관내 서방시장 등 6곳 정류장에 소장 중인 작품을 고화질로 출력해 버스 정류장에 부착,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애리 기자

전동휠체어 타던 80대 하천 빠져 숨겨

순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노인이 하천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남 오전 10시40분께 순천시 풍덕동 동천 인근에서 A(80대)씨가 강으로 추락했다. A씨는 행인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중 모종의 이유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재영 기자

'원호사 상가 임차인 '생활대책대상자' 거부 정당'

광주고법, '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정비 사업'으로 이주 대상이 된 무등산 국립공원 내 원호사 임대 임차 상인들이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건물주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책을 요구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고법판사)는 25일 원호공원마을지구 내 상가 임차인 2명이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생활대책대상자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9년 무등산국립공원 원호사 지구 내 노후 상가를 철거하는 등 정비 사업에 나섰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이주 대상자들에 대해 손실 보상금을 산정, 지급했고 건축물 소유주에의 경우 '생활대책 대상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 재판의 원고들은 오랫동안 무등산 원호사 상가를 빌려 식당을 운영했으나, 상가 주인들과 달리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임차 영업인은 영업권 상실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만큼 생활대책대상자에서 배제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인재영 기자

'불륜 오해' 지인 살해하려 한 치매노인 징역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오해에 지인을 살해하려 한 고령의 치매노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8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노인 일자리 참여 등으로 친분이 있던 지인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손으로 잡고 버티면서 A씨의 발행은 마수에 그쳤다.

A씨는 1심에서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정을 계 획하고 살해하는 과정 자체에서는 피고인 치매 등이 특별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확정적 살인의 고의는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1심의 집행유예에 선고를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고령이고 치매 등 치료가 필요한 것 등을 고려한 1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인재영 기자

전남경찰, 오늘 도내 전역 음주단속

전남경찰청은 25일 오후 7시부터 도내 전 경찰서와 합동 음주·마약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전일까지 전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301건 발생했다. 이중 사망사고는 9건이다.

전체 사고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17.5%(83건) 감소했으나, 사망사고는 1건 증가했다. 이에 전남경찰은 유혹가 주변

과 음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비정상적 주행을 보이는 운전자에 대한 단속에서 음주 반응이 나오지 않을 경우 마약 검사도 함께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과실이 아닌 고의 범죄"라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인재영 기자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유치원·한옥 내·외부·방바닥·전원주택·경로당·아파트·펜션·찜질방·카페·휴집
외벽·독채·양어장·물탱크·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 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 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 등 건강에 좋은 재료를 염색하여 고분자로 만들어 슬랑기나는 친환경 웰빙 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제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공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